



알록달록 색채와 문구로 새롭게 단장한 발산마을 '108계단'.



이웃캠프에 참여한 김영빈씨가 지역주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산마을에서 바라본 무등산과 광주 전경.

“유명 관광지보다 청년·주민 소통하는 마을이면 족해요”

청년이 미래다 〈2〉 '청춘발산'

문화예술기획사·사진팀 등 20여명
광주 양3동 발산마을 바꾸기 한창
주민들도 마음 열고 적극 동참

광주에서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광주시 서구 양3동 발산마을은 최근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아기자자하게 꾸며진 마을길,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청춘빌리지, 디지털 카메라를 든 경로당 어르신들, 곳곳에서 젊음이 묻어나왔다.

주민들과 함께 발산마을을 바꾸고 있는 '청춘발산'팀의 결과물들이다.

청년 약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청춘발산'은 지난 2015년 광주시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현대자동차가 발산 창조문화마을사업을 추진하며 꾸러졌다. 사업을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공공미술프리즘'을 주축으로 지역 문화예술기획사 '데블스(주)', 콘텐츠개발단체 '딤지', 사진팀, 서포터즈가 참여하고 있다.

손명은(여·28) 공공미술프리즘 매니저는 "2015년은 벽화 등을 통해 마을 외양가꾸기에 주력했다면 지난해는 청년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뒀다"며 "올해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청춘발산'은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더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마을 어르신들이 찍은 사진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마을 사진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관은 서구와 협의해 빈집을 활용할 예정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상주하며 방문객들에게 마을을 소개하는 등 안내센터 역할이다.

온라인 부문도 눈에 띈다. 현재 발산마을을 소재로 한 모바일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곳곳에 자리잡은 집들을 모티브로 이르면 올해 초 만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설한 홈페이지(balsanvillage.com) 콘텐츠도 더욱 짝 채운다. 주민·마을·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사진, 동영상도 제공해 홈페이지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든다.

또 청춘빌리지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매실·속청을 재료로 시범적으로 선보였던 청춘발산할매음료도 본격적인



광주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던 광주시 서구 양3동 발산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춘발산'팀.

〈청춘발산팀 제공〉

'청춘발산' 이런 일 해요 마을사진전시관·모바일게임 제작·홍피 운영 주민이 만든 청춘발산할매음료 시판 앞뒀 마을집밥&민박체험...입소문 타고 신청 늘어

판매 준비를 갖춘다. 정식으로 주민들에게 청춘산을 요청해 판매할 계획이다.

'청춘발산'이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까지는 주민 공감대 조성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2015년 마을가꾸기 사업 당시 벽에 페인트칠을 하던 모습을 본 주민들은 '솔 데 없는데 돈을 쓴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기도 했었다.

청년들은 일일이 각 집을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했다. 마을 중심에 자리한 '108계단'을 알록달록 색칠하고 각종 공원을 여는 발산광장을 조성했다. 마을 외양이 변하자 주민들도 조금씩 변했다. 계단을 기준으로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나뉘었던 발산마을은 광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다. 이젠 공연 등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도와줄게 없냐'며 먼저 물어보고 식

사 준비도 도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다섯차례 열린 이웃캠프가 큰 도움이 됐다. 청년들은 1박2일 간 주민집에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고 한밤상을 먹으며 한가죽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데블스팀은 '마을집밥&민박체험'을 기획했다. 사전에 신청하면 주민들이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손맛을 담은 밥상을 차려낸다. 입소문이 퍼지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김다혜(여·25)·남요셉(26)·최환술(22)씨로 구성된 사진팀은 주민들 취미를 바꿔놓았다. 경로당에 모이던 화투만 쳤던 주민들은 청년들이 제공한 카메라를 들고 마을과 이웃들을 렌즈에 담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슨 사진을 찍

나'며 손사래 치던 마을 어르신들은 자신이 사는 집, 동네 꽃밭 등 가까운 곳부터 찍으며 흥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열렸던 함평국화축제에 갔을 때도 주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카메라를 뚝뚝 찍었다. 마을사진전시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김다혜씨는 "처음에는 핸드폰 카메라도 안 쓰시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전시관을 운영하겠다고 말하자 보람을 느꼈다"며 "조형물 등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진짜 주민들과 어울리며 재미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춘발산'은 이를 그대로 청년들이 모여들어 시골벽처럼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저희들은 발산마을이 유명한 관광지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저 청년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지며 생기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 때문에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게 재미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데블스 신준섭·김영빈)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960년대 발산마을과 전남방직을 이어주던 뽕다리.

광주 서구 양3동 발산마을 6·25 이후 피난민촌 형성 전남방직 호황 땀 기숙사 '창조문화마을' 부푼 꿈

발산마을은 광주시 서구 양3동 나지막한 고개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 모양이 스님들이 쓰는 공양그릇 '바리'를 얹어놓은 모습이라고 해서 발산(鉢山)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해방 전까지는 약 20~30가구가 모여살던 곳이었다. 1950년대 6·25전쟁이 일어난 이후 광주천을 따라 피난민촌이 형성되며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1970년대 광주전 독감공사로 천변 율막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산비탈로 올라와 집을 지으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마을이 가장 성황을 이룬 시기는 1960~70년대였다. 광주천 너머에 자리한 전남방직, 일신방직이 호황을 이루며 전국에서 찾아온 여공들의 기숙사 역할을 했다. 전남방직 여공숙소를 비롯해 임대료가 싼 방을 찾아 모여든 여공들이 마을에 터를 잡았다.

하지만 1980년대 방직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자리를 찾아 젊은층은 떠나갔고 빈집이 늘어났다. 2015년 당시 2232세대 5474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1인 세대가 740세대에 달했고 버려진 집은 21채였다.

발산마을을 지탱하는 힘은 강한 공동체 의식이었다. 마을 주민 70%가 30년 이상 거주하는 등 대부분 토착민으로 구성돼있다. 예전처럼 활기있는 마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 염원은 광주시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냈다.

2015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2년간 10억을 지원하는 창조문화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018년까지 56억원을 투입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새마을사업을 진행한다.

지역예술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B'팀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에 2014~2015년 연속 선정되며 시너지 효과를 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